



KIA가 21·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프로야구 사상 첫 동일팀 상대 연속 강우 콜드승을 거뒀다. 사진은 21일 강우콜드가 선언된 뒤 기뻐하는 KIA 선수들.

# KIA “비야 고맙다”...이틀 연속 강우 콜드 승

4-2, 1-0 두산 격파

올 시즌 첫 4연승...6위 도약

하늘이 도운 ‘호랑이 군단’의 시즌 첫 4연승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1-0, 6회 강우콜드승을 거뒀다. 전날 경기에서 5회 콜드승(4-2)을 장식했던 KIA의 마무리는 이번에도 ‘비’였다.

1-0으로 앞선 6회초 1사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대피했다. 1회에도 한차례 경기가 중단됐다가 재개 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중단 이후에

는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오후 7시8분 강우 콜드가 선언됐다. KIA는 하늘의 도움 속에 프로야구 최고 동일 팀 상대 2경기 연속 강우 콜드승이라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마운드 고민 속에 주말을 맞은 KIA에게는 천금 같은 비였다. 양현종과 흥문의 환상적인 피칭으로 2연승에는 성공했지만 선발 테스트 중인 김병현과 임준섭이 주말 선발로 대기하고 있던 상황. 상대 두산은 휴식기를 앞두고 마운드 총력전이 가능했다.

21일에는 5이닝 2실점으로 선전을 한 김병현에게 행운이 따랐다. 안치홍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는 등 야수진들이 4

점을 만들어주며 김병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두산의 공격이 펼쳐지던 5회 말에는 굵은 비가 쏟아졌다. 클리닝 타임이 지나고 30분이 흘러도 비가 멈추지 않으면서 강우 콜드가 선언됐다. 김병현의 이적 후 선발 첫 승은 5회 완투승이 됐다.

22일에는 임준섭이 ‘럭키가이’가 됐다. 불발은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김주찬이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출루했다. 이범호와 이대형이 삼진과 좌익수 플라이로 돌아섰지만 나지완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쟁겼다.

김주찬의 2루타와 안치홍의 좌전안타로 선두타자가 출루했던 3·4회, 후속타 불발

로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임준섭이 만점 피칭으로 리드를 지켰다.

깔끔하게 1회를 출발한 임준섭이 3·4회도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선두타자를 내보낸 2회에는 홍성흔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뒤 이원석과 최재훈을 상대로 연속 탈삼진을 뽐으며 이닝을 종료했다. 5회 1사에서 이원석에게 두 번째 피안타를 맞았지만 2루는 허용하지 않았다.

임준섭은 5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시즌 4승에 성공했다. 5회 완봉승이다.

KIA는 넥센전 2연패 뒤 4연승 행진을 펼치며 SK를 따돌리고 6위로 한 주를 마감했다. /김여울기자 wool@

# 신지애, 4년만에 JLPGA 우승

니치레이 레이디스 오픈

상금 랭킹 8위로 경창

‘지존’ 신지애(26)가 일본여자프로골프 무대에서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22일 일본 치바현 소데가우라 골프장(파72, 6584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였다.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적어낸 신지애는 공동 2위 후지타 히카리, 요시바 루미(이상 일본·8언더파 208타) 등을 4타차로 제치고 일본 무대에서는 2010년 미즈노 클래식 이후 4년 만에 우승했다.

일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를 포함해 일본 무대에서만 5승을 거둔 신지애는 우승 상금은 1440만 엔(약 1억4000만원)을 받았다. 시즌 상금 3222만 엔(약 3억2000만원)을 쌓은 신지애는 상금 랭킹 8위로 뒤

어올랐다.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신지애는 올 시즌 LPGA 투어 생활을 접고 일본 투어에 전념했다.

4타차 선두로 3라운드에 나선 신지애는 전반에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13번홀(파4)에서는 보기를 해 흔들리기도 했지만 15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인 뒤 17번홀(파3)과 18번홀(파5)에서도 연속 버디를 날려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신지애는 “미국 생활 접고 일본에 오니가 잔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샷 실수로 보기를 많이 해 그동안 우승을 쉽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높임말을 가려서 해야하는 일본어 때문에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신지애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팬들에게 감사한다”며 “남은 시즌 좋은 성적을 내 일본 상금왕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추신수, 30일 만에 시즌 7호 홈런포

LA에인절스전 3번타자 출전

9회초 솔로포... 팀은 2-3 패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가 극적인 동점 솔로포를 쏴 올렸다. 팀이 연장전 끝에 패했지만, 추신수는 팀이 올린 2점을 모두 책임지는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2로 뒤진 9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해 상대 마무리 케빈 젤슨의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중앙 펜스를 넘는 비거리 131m의 솔로 홈런을 쳤다. 5월

2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이후 30일 만에 나온 추신수의 시즌 7호 홈런이었다.

3번타자·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1회초 1사 3루에서 2루 땅볼로 타점을 올렸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추신수의 진가를 보여줬다. 추신수는 조구 156㎝짜리 볼을 고른 후 2구째를 통타, 중월 솔로포를 쏴 올리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10회말 무사 1루에서 캔들릭의 좌익수 쪽 끝내기 2루타로 에인절스가 3-2 승리를 거두면서 추신수의 홈런 빛이 바랬다. 이날 4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52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 1시간 20분의 승부,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고강석 102kg〉 〈이재광 132kg〉

여수공고 전국씨름선수권 제패

단체전 우승·금3·동1 획득

고강석, 역사급 우승 등 2관왕

여수공업고등학교(교장 전용석)가 2년 만에 전국씨름선수권대회를 제패했다.

여수공고는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군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비롯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여수공고는 단체 결승전에서 부평고를 4-3으로 눌렀다.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올해 2관왕(회장기·중평인삼배) 공주생명과학고를 4-2로 누르고 기세를 올렸다.

결승전 경장급(70kg 이하)에서 패해 0-1로 뒤진 여수공고는 소장급(75kg 이하)에서 최현준이, 청장급(80kg 이하)에서 이평우가 승리해 2-1 역전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용장급(85kg 이하)에서 부평고에 저 2-2 동률을 이뤘다. 한 체급씩 승리를 주고받은 양팀은 역사급(110kg 이하)에서 최종 승부를 가렸다.



지난 20일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 고등부 단체전 결승에서 여수공고 마지막 주자 고강석이 자신보다 체중이 30kg 많은 이재광(부평고)을 2-0으로 제압, 우승을 확정짓자 동료들이 기뻐하며 뛰어나오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수공고 고강석(3년)은 경기 시작과 함께 이재광(부평고)을 밀어치기로 높이고, 둘째 판에서도 안다리를 성공해 1시간20분의 길고 긴 단체전 승부를 끝냈다.

특히, 고강석(102kg)은 자신보다 체중이 30kg이나 많은 이재광(132kg)을 제압,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고강석은 개인전에서도 역사급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그는 “오는 10월 제주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2012년, 2013년

에 이어 3년 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여수공고는 소장급에서도 최현준(2년)이 노범수(대구영신고)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김기수 부장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FC의 김유성이 VIP에서 열린 나눔데이 행사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 일일요리사가 된 축구선수

광주FC 나눔데이 행사 개최

광주 FC의 백민철, 이종민, 이찬동, 김유성이 ‘일일 요리사’가 됐다.

광주 FC가 지난 21일 후원사인 패밀리 레스토랑 VIP와 서구 VIPS 광천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소년소녀가장 200여 명을 초청해 나눔데이 행사를 열었다.

백민철, 이종민, 이찬동, 김유성 등 4

명의 선수는 ‘일일 요리사’로 나서 아이들과 직접 파스타를 만들고 만찬을 즐겼다. 마술쇼 관람과 팬사인회 행사도 열리는 등 풍성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주 FC와 VIPS, 전국 소년소녀가장돕기 광주·전남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월18일 까지

# 소파 식탁 보신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